자료제공 : 2023. 3. 9.(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2133-7414
담 당 자	이주문	2133-953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매수 : 6쪽

오세훈 시장, '인생감동 어르신' 오찬…나이는 숫자에 불과·용기와 희망 전달

- 92세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 이상숙 어르신 등 '인생 감동 선배님' 오찬 초대
- 후배 시민들에게 따뜻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미래를 응원
- 오 시장 '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재능 성장'을 이뤄낸 감동 선배님에게 공경과 감사

□ 오세훈 시장은 나이의 한계를 극복한 '인생 감동' 어르신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 오찬은 9일 낮 12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여섯 분의 '인생 감동' 어르신과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했다.

□ 올해 2월, 학부를 졸업한 지 57년 만에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이상숙 어르신은 사회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열정을 가슴에 품고 87세에 대학원 정규과정을 시작하였다. 이상숙 어르신은 5년간 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고 만92세의 나이로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이에 대해 생각해 본 일 없이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이상숙 어르신은 졸업 후에도 계속 연구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이상숙 어르신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쉬고 싶어 시작한 공부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고, 한차례의 결석이나 빠뜨린 과제도 없이 개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 오찬 참석자로는 △'1만 6,000시간 넘는 자원봉사자'인 홍경석(만76세) 어르신, △2022년 제16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장관표창을 받은 '어르신 문화예술 자원봉사자' 이복계(만91세) 어르신, △85세가 되던 해에 쓰러진 남편을 재가 간병하고 그 이야기를 수필집으로 펴낸 '아흔 남편의 재가 간병 중 행복을 그린 수필가' 유선진(만87세) 어르신,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으로 스스로 일하는 시니어이자 '시니어 취업을 돕는 특공대' 변창수(만68세) 어르신과 △젊은 시절 사회활동은 직업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던 분야, 관심사에 따라 하고 싶은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한다는 '열정적인 시니어 활동러' 김종윤(만67세) 어르신이 함께 하였다.

○ 서울시는 '인생감동 선배님'이신 어르신들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재능 성장을 위해 노력한 선배 시민으로서 간담회를 빛내주었다고 전했다.

□ 오세훈 시장은 오찬을 통해 "따뜻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인생감동 선배님'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후배시민들이 나이는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재능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인생감동 선배님 소개

인생감동 선배님	나는	인생감동 선배님의 이야기
이상숙님 (만92세)	**“92세,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	학부 졸업 57년 만에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로 광진구에서 구로구까지 통학하면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중앙일보, EBS 등 인터뷰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정신연령은 가장 어린’ 감동 선배님
홍경석님 (만76세)	**“1만6000시간 넘는 자원봉사자”**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되찾고 싶어 봉사를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겨 14년 넘게 1만6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 중인 진정한 나눔 선배, 한국가스안전공사 31년 근무 경력을 살려 노후 주택 거주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가스 누출 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 중
이복계님 (만91세)	**“어르신 문화예술 자원봉사자”**	연극동아리 활동 및 우리 춤 공연봉사 등 문화예술계통의 어르신 자원봉사자로 20여년간의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받아 2022년 제16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에서 장관 표창 수여
유선진님 (만87세)	**“이혼 남편의 재가 간병 중 행복을 그린 수필가”**	15년 넘게 파킨슨을 앓았지만 건강했던 남편이 85세 되던 해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만 있던 남편에게 다시 일상을 선사하고자 7년째 재가 간병 중인 유선진 작가, 남편과의 이야기를 수필집으로 펴내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
변창수님 (만68세)	**“시니어 취업을 돕는 특공대”**	50세에 은퇴한 이후 시니어 일자리를 거쳐, 시니어 강사, 동년배 취업서포터즈 등 활동하다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교육하는 강사들의 모임인 펀더플드림협동조합을 구성, 제2의 인생으로 스스로 일하는 시니어이자 시니어 취업을 돕고 있는 열정 선배님
김종윤님 (만67세)	**“열정적인 시니어 활동러”**	은퇴 이후, 직업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내가 진짜 원하던 분야, 관심사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 생각하며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과 노인일자리,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등 다양한 활동 중

붙임 **인생감동 선배님 오찬모임 참석자 현황**

연번	성 명	나이	비고
1	이 상 숙	만92세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
2	홍 경 석	만76세	“1만 6,000시간 넘는 자원봉사자”
3	이 복 계	만91세	“어르신 문화예술 자원봉사자”
4	유 선 진	만87세	“아흔 남편의 재가 간병 중 행복을 그린 수필가” * 수필집 “한 평 반의 행복” 출간
5	변 창 수	만68세	“시니어 취업을 돕는 특공대”
6	김 종 윤	만67세	“열정적인 시니어 활동러”
7	임 정 아	-	“국내 최고령 박사학위 수여자이신 이상숙님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멘토 교수님”

붙임 **사진 자료**

* 왼쪽부터 김종윤, 홍경석, 이상숙 어르신, 오세훈 서울시장

* 좌측 상(김종윤, 오세훈 서울시장, 변창수) 좌측 하(홍경석, 이상숙, 이복계, 유선진)

* 좌측 이복계 어르신, 오세훈 서울시장, 우측 이상숙 어르신